

네팔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허연약, 박이레, 빛, 별, 감사, 지혜)



오늘(26.8.26)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연 앞에, 창조 질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중국 티베트 쪽에서 4.4 지진 발생 후 빙하가 붕괴하고 티베트 쪽의 렌덴강에 빙하 댐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쓰나미 같은 물이 중국을 넘어 네팔의 샤브루베시를 시작으로 계곡을 타고 트리술리강까지 계곡 주변 지역을 삼키고 지금 네팔 남부 치트완 지역까지 아직 진행중이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몽실몽실 떠 있는데 강에서 무섭게 쏟아지는 물은 샤브루베시에서 트리술리 강까지 설치되어 있던

모든 다리를 다 무너뜨렸고, 강 주변의 마을들도 휩쓸려버리거나 2층 혹은 3층까지 잠겨버렸습니다. 특히 중국국경 강가 마을은(띠무레, 샤브루베시등) 전부 다 쓸려가버렸다는 말도 들립니다.

피하거나 대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진 이후 또 이렇게 큰 자연재해를 입은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선한 뜻만 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온통 진흙탕입니다.

지금 선교센터는 홍수를 피해 온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신학생들과 홍수를 피해 온 콜라베시(지진난민마을)마을 사람들과 ‘사역자 제자반 세미나’를 마친 사람 중 홍수로 다리가 끊어져 마을로 돌아가지 못한 사역자들까지 현재 50명 이상이 선교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선교센터에 지치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더 늘어날거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배뿐입니다. 함께 두손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기는 끊어졌고, 씻고 먹을 물은 부족하며, 통신망도 연결이 되었다 안되었다 불안정하고, 날씨는 더울지라도 50여 명이 건강하게 선교센터에서 머물며 영육의 양식을 먹으며 회복하고 평안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선교센터 옥상에서 강이 범람할 때 찍은 모습과 홍수를 피해 모인 성도들과 세미나실에서 예배하는 모습

- 홍수로 피해를 당하여 마음이 가난해 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안아 주는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홍수로 피해를 본 교회와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며, 원망하고 울부짖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교회를 통해 임하도록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로마서 12:15)
- 홍수로 실종된 사람들과 관광객과 수력발전소 일하러 온 한국 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도록
- 홍수를 피해 선교센터에 머무는 사람들이 새힘을 얻도록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